

광주·전남 신생기업 절반 2년도 못 버틴다

5년 생존율 광주 26.5%, 전남 27.3% 불과 광주 3년 연속 꼴찌...신생기업 불모지 오명

2018년 기업생멸행정통계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생기업 절반은 2년도 못버틴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신생기업 5년 생존율은 3년 연속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꼴찌라는 오명을 남겼다.

통계청은 12일 '2018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를 발표하고 지역별 기업생존율을 공개했다.

지역기업의 5년 생존율은 광주 26.5%·전남 27.3%로 집계됐다. 신생기업 3곳 가운데 1곳은 5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광주지역 기업 5년 생존율은 2016년부터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광주는 5년 생존율이 23.9%로 전년 최하위 대전(24.4%)으로부터 꼴찌 자리를 물려받았다. 이듬해인

2017년도 광주기업 5년 생존율은 25.2%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 28.5%에 훨씬 못미쳤다.

전남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기업 5년 생존율은 2016년 10위(26.1%), 2017년 12위(27.2%), 2018년 14위(27.3%)로 전국 평균치를 밑돌며 하위권을 전전했다.

지난해 기준 1년 생존율은 광주 63.9%·전남 63.6%였고, 2년 생존율은 광주 50.6%·전남 52.7%를 나타냈다.

광주·전남지역 신생기업 수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소멸된 기업 수는 더 많았다.

광주지역 신생기업 수는 2016년 2만 2604개→2017년 2만 4448개→2018년 2만 5628개로 해마다 증가했다.

하지만 소멸기업도 1만 7785개(2016년)에서 1만 9352개(2017년)로 큰 감소폭(1567개)을 보였다.

■ 지역별 기업 5년 생존율

(2018년 기준·단위:%)					
	전체	29.2	9	강원	28.2
1	서울	30.9	10	전북	28.2
2	부산	30	11	울산	27.6
3	경기	30	12	경남	27.6
4	대구	29.6	13	인천	27.4
5	세종	29.5	14	전남	27.3
6	제주	29	15	충북	27
7	경북	28.6	16	대전	26.9
8	충남	28.3	17	광주	26.5

(자료: 통계청)

전남지역 신생기업은 2016년 2만 7251개에서 2017년 2만 7595개로 늘었지만 지난해는 2만 7310개로 오름세가 꺾였다. 전남 소멸기업 수도 2016년 1만 9962개에서 2017년 2만 1912개로 9.7%(1950개) 증가하며 2만개 넘는 기업이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활동기업은 광주 16만 4932개·전남 19만 6947개로 전년보다 각

각 5.8%(9095개)·2.5%(4863개)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10명 이상인 활동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상용근로자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비율은 광주지역은 2017년 6.1%에서 2018년 5.9%로 하락했다.

전남지역도 2017년 20.5%에서 지난해 18.5%로 줄었다. 20% 이상 고정장기비중도 광주지역은 2017년 2.1%에서 지난해 1.9%로 줄었고, 전남도 1.8%→1.6%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처럼 광주·전남지역이 '신생기업 불모지'라는 오명을 갖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기준 지역 전체 활동기업 가운데 광업·제조업 비중은 광주 6.5%(1만 739개)·전남 7.3%(1만 4476개)에 불과했다. 반면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비중은 광주 39.1%(6만 4587개)·전남 42.2%(8만 3147개) 등 절반에 육박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37.35 (+31.73) 금리(국고채 3년) 1.38 (0.00)
- ↑ 코스닥 636.94 (+7.81) ↓ 환율(USD) 1186.80 (-7.90)



광주 남구 도시첨단 '제일풍경채' 분양

6개동 533가구...2022년 입주 분양가 낮고 주거환경 쾌적

제일건설이 광주 서구 도시첨단 D 2블록에 '제일풍경채'를 분양한다. 견본주택은 서구 관천동 마트 광주점 인근에 마련했으며, 13일 개관한다. 입주는 2022년 5월 예정이다.

제일풍경채는 지하 1층~지상 20층 6개동, 총 533가구이며, 전체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84㎡ A타입 302가구, 84㎡ A-1타입 17가구, 84㎡ B타입 214가구다.

청약 일정은 오는 17~18일 이틀간 산업단지 특별공급이 진행되며, 19일 1순위, 20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7일이며, 계약은 내년 1월 7~9일 사흘간 견본주택에서 진행한다.

이 단지는 전국구 청약이 가능하다.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들어서는 아파트로 '산업 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주 제한 없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자들도 기타지역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합리적인 분양가도 장점이다. 분양가격이 3.3㎡당 평균 928만원이다. 5년 전 수준의 분양가격이 책정돼 관심이 높다. 또 도시첨단단지 내 마지막 일반분양 아파트로 희소성이 있다.

풍부한 배후수요도 자랑할만하다. 광주 도시공사가 2017년 말부터 추진해 온 93만 2000여㎡ 에너지밸리와 48만 6000여㎡ 규모의 도시첨단국가산단을 끼고 있다.

도시첨단단지에는 한국전기연구원, LS산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인셀루 등의 입주가 확정됐다. 특히 지난 달 6일 에너지산업융합복합도시로 지정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에너지신산업 도시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갖췄다. 동측에 방구산이, 남측과 서측엔 근린공원이 조성된다. 남서측 지식제 일대는 '힐링코스 조성 및 경관 증진사업'으로 선정돼 소나무숲 황토길·호수길을 조성될 계획이다. 대촌 중앙초·대촌중·광주국제영어마을 등이 가깝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목포서 창업보육인의 밤 창업유공자·우수기업 포상

광주전남중기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2일 목포에서 '2019 광주·전남·제주지역 창업보육인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창업 유공자 및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는 한편 광주·전남 지역 우수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창업지원기관과 입주기업, 예비창업자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광주·전남·제주지역 29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중 신기술 창업 우수 기업 4개사와 창업보육 유공자 4명이 표창장을 받았다.

호남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에스이에너지는 태양광발전소와 에너지저장장치 ESS를 개발한 친환경 에너지 전문업체로 창업 원년 대비 4500%의 꾸준한 매출성장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임주동 한국광기술원 창업보육센터 매니저는 지역의 열악한 여건에도 창업생태계 조성 및 우수기업 경쟁력 제고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이승건 지앤아이씨티 대표, 장소영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매니저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KEB하나은행, 4분기 6400만원 지역사회 환원



정민식(왼쪽 네번째) KEB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장이 지난달 27일 임택(왼쪽 세번째) 광주동구청장에 저소득층을 위한 500만원 상당 이불을 전달하고 있다. (하나은행 제공)

청소년에 300만원 상당 이불 전달

시중은행의 사회환원 역할이 강조되면서 지역사회의 공헌활동도 강화되고 있다.

12일 KEB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그룹장 정민식)에 따르면 올해 4분기 KEB하나은행의 광주·전남지역 사회환원액은 64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집계됐다.

KEB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은 지난 달 26일 순천시 승격 70주년을 기념해 열린

'순천사랑에 김장나눔대축제'에 참가, 1000만원 상당의 김장김치를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층 지역민에게 전달했다. 이날 10일에는 나주영산고교에 학교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하고 (사)대한노인회 광주시 북구지회에 500만원 상당의 이불 100채를 전하기도 했다.

13일 오전에는 광주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초생활수급 청소년 등에게 300만원 상당 이불 60채를 전하고 같은 날 목포장사사회복지관을 방

문해 지역 장애인 등에 이불 100채를 전달한다.

정민식 호남영업그룹장은 "KEB하나은행은 소외계층 지원, 보육지원, 사회적 금융, 글로벌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올 구조조정 대상기업 210곳...중소기업 96%

부실 징후를 보여 구조조정 수술대에 오르는 기업이 올해 210곳으로 집계됐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부실화 속도가 빠르고 기계장비·부동산·자동차부품 등 업종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기업 3307개사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210개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했다. 부실징후기업은 C등급 59개사와 D등급 151개사로 구성된다. 이들 기업은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 등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부실징후기업 수는 지난해보다 20개사가 늘었다. 전반적인 업황이 좋지 않았던 데다 세부평가 대상 기업 수가 355곳 늘어

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부실징후를 보이는 대기업 수는 9개사로 지난해보다 1개사 줄었다. 부실 중소기업은 201개사로 지난해보다 21개사 늘었다. 2017년 174개사, 2018년 180개사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중소기업의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부실징후 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84.6%, 2017년 87.4%, 2018년 94.7%, 2019년 95.7%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 분야 기업이 35개사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이 19개사, 자동차부품 17개사, 금속가공 17개사, 도매·상품중개 14개사 등 순이다. /연합뉴스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 상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하세요

한국 신협은 117개국 2400조 자산 규모의 세계신협연합회 아시아 회장국으로서 전 세계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알고계시나요?

- 고금리 대출을 3%~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3~4개월 500~5000만원 대출 가능
- 50세 이상 조합원 필수조건(가족이 후원가능)
- 3~4개월 500~5000만원 대출 가능
- 50세 이상 조합원 필수조건(가족이 후원가능)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사채 정리 운동 실시 기간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 (기연연정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